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풀버전] 네이버 검색 '총만국'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재찬>>

◆차례◆

1. 문학과 삶

봄눈 오는 밤-----	1쪽 (47문제)
19세-----	19쪽 (46문제)
풀 비린내에 대하여-----	47쪽 (16문제)
쉽게 씌어진 시-----	57쪽 (45문제)
보리타작-----	74쪽 (40문제)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87쪽 (35문제)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산유화-----	109쪽 (53문제)
속미인곡-----	128쪽 (55문제)
유자소전-----	151쪽 (39문제)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176쪽 (12문제)
뿌리 깊은 나무-----	182쪽 (10문제)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서경별곡-----	190쪽 (36문제)
시조 두 편-----	203쪽 (15문제)
모닥불-----	210쪽 (6문제)
농무-----	213쪽 (12문제)
구운몽-----	218쪽 (15문제)
만세전-----	228쪽 (5문제)
축규화-----	234쪽 (2문제)

▶ 전체 정답-----236쪽

(버전: 2020.03)

1-(1) 봄눈 오는 밤

정리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감각적, 서정적, 심미적
제재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주제	봄눈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
특징	① 의인법, 중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②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구성	1연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2연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3연	나무의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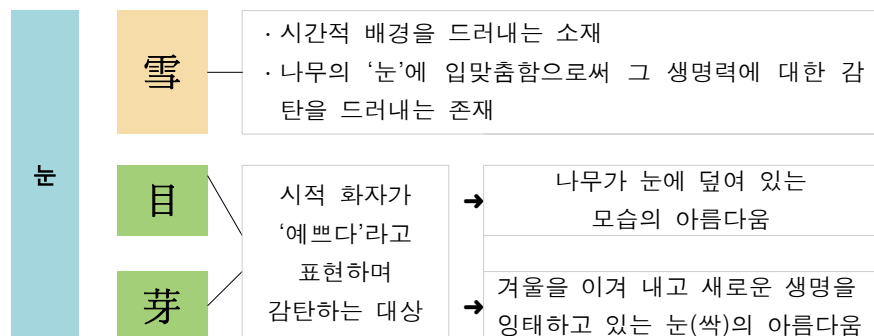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 **봄눈** ① 시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② 나무의 '눈'에 입맞춤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는 존재
- * **감은 눈**: 시적 화자가 '예쁘다'라고 표현하며 감탄하는 대상. 이때 눈은 감각 기관인 눈 [目과 초목의 싹'을 뜻하는 눈 [芽] 으로 볼 수 있다.

■ 시의 중심 내용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1연	봄밤, 길 건너 숲속에서 나무들이 눈을 맞고 있음.
	↓ 관찰, 공감	
	2연	나무들이 예쁜 눈을 감고 있음.
화자가 상상한 내용	↓	
	3연	눈송이들이 나무들의 감은 눈에 감탄하며 입 맞추려 퍼부음.

■ '눈'의 의미



■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

의인법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게 하는 방법	
	[예시]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쁘지.	[예시]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중의법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예시] 너의 예쁜 감은 눈.	
돈호법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방법	
	[예시] 너, 아니?	
영탄법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예시]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봄눈 오는 밤>으로 살펴 본 문학의 심미적 가치와 기능

<봄눈 오는 밤>에 담긴 문학의 심미적 가치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그린 시를 감상하며 심미적인 측면을 통해 정서적으로 고양됨.
--------------------------	---



문학의 심미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활동을 통해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할 수 있음.·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름의 정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낌.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A]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인천고등학교 (인천)

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③ ㉢ : 나무가 봄눈에 덮여있어 눈[目]을 감은 상태와 봄을 맞아 싹[芽]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모두를 의미한다.
- ④ ㉣ : 나무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감탄하는 화자의 공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 심표 사용과 행갈이, 도치법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산)

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느껴지는군.
- ② 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⑤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고등학교 (인천)

3.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꾀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럴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적 대상을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 ② 계절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③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을 제시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경관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4.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국화야 너는 어찌하여 따뜻한 봄이 다 지난 후에 / 이렇게 추운 계절에 너 홀로 피어 있느냐 / 아마도 매서운 서리를 이겨내는 곳곳하고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 ②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이별하고 /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 ③ 뭇버들 가지를 골라 꺾어 보냅니다. 임에게 / 주무시는 방의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 밤비에 새 잎이 나면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 ④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 나는 젊었으니 둘이라 한들 무거울까. / 늙는 것도 서럽다 하거늘 짐까지 지시겠는가.
- ⑤ 동기로 태어난 세 몸이 한 몸같이 지내다가 /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 날마다 석양 무렵 문 밖에 나가 한숨 겨워하노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쁘지.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심표 사용과 행갈이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6. <보기>는 '눈'의 사전적 정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눈¹ [명사] 1.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눈을 뜨다.
 2. 시력.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눈이 좋다.
 3. 사람들의 눈길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눈² [눈 :] [명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눈³ [명사] 식물의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 꽃눈. 잎눈 따위.

- ① ㉠은 ㉡과 달리 짧은 소리로 소리 내야겠군.
- ② ㉠이 '눈³'의 의미라면, '싹'으로 바꾸어도 무방하겠군.
- ③ ㉡은 '눈¹-1'과 '눈²'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중의성을 띄고 있겠군.
- ④ ㉠과 ㉡은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라 할 수 있군.
- ⑤ '눈¹'은 다의어이므로 ㉡은 '눈¹-1' 이외의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군.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7. 윗글에 사용된 수사법(修辭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별이 내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 ② 청산아, 왜 학처럼 야위었느냐
- ③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④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8.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찢려

빠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

- 함민복, '봄꽃'

<조건>

- 1. 공통점은 내용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시오.
- 2. 차이점은 형식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시오.

1-(1) 19세

정리

갈래	현대 소설, 장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자전적, 고백적, 회고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배경: 주인공의 13~19세 (교과서 수록 부분은 17세~19세) • 공간적 배경: 강원도 강릉과 대관령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한 소년의 꿈과 방황을 통한 성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 인물의 성장 과정을 그림. ② 사건의 진행이 순차적인 구성을 따름. 		
구성	13세~16세	여러 일을 겪으며 성장한 '나'는 고1 때의 겨울,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뜻을 표현함.	
	17세 (2학년 개학 전후)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아버지와 갈등함. 아버지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나'가 농사를 짓도록 허락함.	
	17세 3월~18세	'나'는 승태를 비롯한 친구들과 협력하여 고랭지 배추 농사를 준비함.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큰돈을 벌고, 어른이 된 듯이 행동함.	
	18세 추수 무렵	'나'는 자신의 행동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였음을 깨달음.	
	19세	'나'는 두 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감.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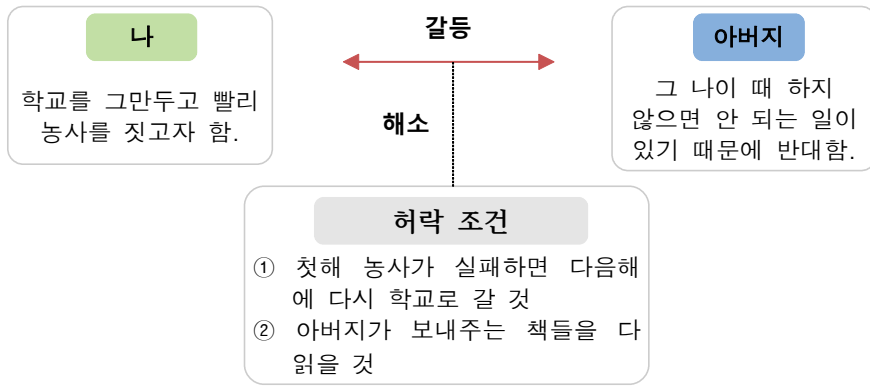
■ 등장인물의 소개

나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하며 자립심이 강함.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성찰할 줄도 앎.
아버지	'나'를 믿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도록 도와 줌.
형	공부를 잘 함. '나'에게 열등감을 유발하는 존재
승태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절친한 친구. '나'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줌.
승희 누나	승태의 누나. '나'의 첫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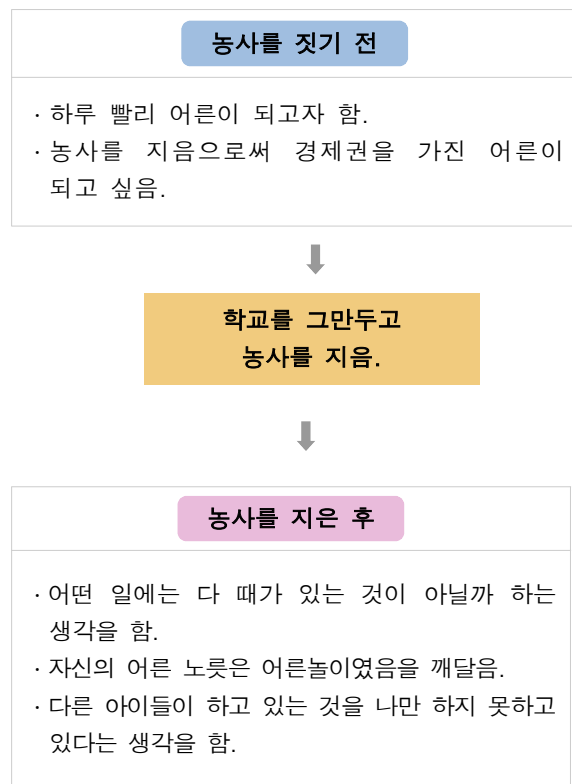
■ '나'가 대관령에 가 농사를 지으려고 한 이유

- ①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
- ② 집안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내 경제의 농사'를 이루기 위해

■ '나'와 아버지의 갈등 양상과 해소



■ '나'의 생각의 변화



■ <19세> 로 살펴 본 문학의 인식적 가치와 기능

<19세> 에 담긴 문학의 인식적 가치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함.
↓ 독자의 수용	
문학의 인식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고,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주인공의 경험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인식하도록 도움. · 자신과 타인, 나아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말 저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 주세요요.”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버렸다. 임무 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그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다.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도지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했다.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 달라고.

방학 전에도 1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하고, 개학이 되어서도 내가 학교로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집으로 친구들을 보냈다. 학급 실장과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용문이었다. 그 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일 내가 학교로 나가 볼 테니까.”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방까지 다시 아버지와 길고 긴 줄다리기를 싸움을 했다.

<중략>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 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다음 해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 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하기야 그리고 싶어 할 사람도 아니지만) 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스물 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길고 긴 줄다리기를 끝에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 농군으로서 내가 제일 처음 한 일은 승태 집에 들러 승태를 데리고 동아일보 강릉 지국을 찾아간 것이었다.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

“야, 이정수, 니 기어에 성공했구나. 응. 책하고 교복에 불 싸지르고 토껴 가지고.”

“그러면 니도 불 싸지르고 토껴 봐. 그럼 흑시 아냐? 느 아버지가 니한테 간장공장 말길지.”

“맞기는 거 좋아하네. 그랬다간 아마 우리 아버지 나를 간장 국물에 튀겨 죽이려 들 거다. 느 아버지니까 봐준 거지. 그런데 신문 지국엔 왜 가는데?”

“따라오면 알아. 싫으면 말고.”

<중략>

그것으로 나는 다음 해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행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지난 초여름 내 오토바이 뒤에 타고 함께 대관령에 갔던 승태 누나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왔고,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숙제처럼, 그리고 나중엔 거기에 내가 더 깊이 빠져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해 커다란 서가 하나를 채우고 남을 정도에 이른 책들도 나의 그런

생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형도 제대해 집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제갈 무후도 내가 그렇게 해 주길 바라기는 했겠지만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웬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스무 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 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니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랄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너는 그걸로 무얼 벌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니가 하기 나름인 게지.”

- 이순원, '19세'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을 세워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 ② 선생님은 나를 학교로 오게 하기 위해 나의 집에 친구들을 보냈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생각에 반대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
- ④ 승태는 나의 선택에 동조하고 나를 부러워하며 나의 농사를 도와주었다.
- ⑤ 형의 제대를 계기로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오토바이를 팔았다.

의정부고등학교 (경기)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백적 태도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화되는 인물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주요 사건을 다양한 인물의 시각으로 보여주어 사건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정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이다.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 성적 호기심,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다. 빨리 돈을 벌어 농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 나는 주산을 잘하지 못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사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 “저,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면?”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 주세요.”
 “대관령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아뇨,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이봐라, 정수야.” / “예.”
 “니 올해 나이가 몇이나?” / “열일곱 살요.”
 “그러면 그건 스무 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중이라도.”
 “저는 빨리 하고 싶어요. 한 해라도 빨리요.”
 “그런 거 빨리 해서 뭘 할 건데?”
 “돈 벌려구요. 공부도 취미가 없고 하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고 하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구요. 이번엔 아주 멀리요.”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그 말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건너가서 내일 학교 갈 준비나 해.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든 우리한테 맡기겠다고요.” /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도 저는 학교 이제 안 다녀요. 지금까지도 억지로 다녔던 거라구요.” / “글쎄, 건너가래도.”
 “정말 저 안 다녀요. 그러니 제발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자 나를 방에 놔두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버렸다. 임무 교대를 하듯 다시 어머니의 길고 긴 잔소리가 이어졌다. 그때에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악을 쓰듯 말했다. 그렇게 다시 전쟁과도 같은 사흘을 보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도지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했다.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학교로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중엔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그 고집만은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대관령으로 보내달라고.

(나)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기를 끝에 그해 봄 나는 대관령으로 갈 수 있었다.

서른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느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가보다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겨울이 되면 어른들이 어느 집 사랑이나 뒷방에 모여 묵 내기나 담배 내기 화투를 칠 때가 있다. 그때에도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다음해 겨울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 화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던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어른들의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하기야 그러고 싶어 할 사람도 아니지만) 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스물 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물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고 싶어 환장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다.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환장했던 것이고,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대관령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시작한 나는 운 좋게 풍작을 거두어 처음으로 큰돈을 손에 쥐게 된다. 배추 상인들과 직접 흥정하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는 등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지만,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다) 그해 수확을 마치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강릉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경포대까지 최고 속도로 달려 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 오토바이를 팔아 치운 것이었다.

그것으로 나는 다음 해에 펼칠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러길 바라서가 아니라 나중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처럼 두 번째 여행과 가을 사이에 했던 것이다. (중략) 그 무렵 무엇보다 나를 우울하게 했던 것은 지난 이태 동안의 내 삶에 대한 나 스스로의 생각이었다. 웬지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한 것이었다. 이런 상태로 다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스무 살이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된다 해도 그 일에 대해 어떤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하는 짓은 여전히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어떤 후회나 소외감처럼 조금씩 내 가슴에 스며들어 오던 것이었다.

(라)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 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놓았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동안 니가 지은 건 농사가 아니다. 운이 좋아 남이 만지지 못한 돈을 만지긴 했어도 그거야 농사랄 것도 없이 노름이고 장난인 거지. 너는 그걸로 무얼 벌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잃은 것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한 시간만은 아닐 게다. 그건 앞으로 니가 하기 나름인 게지.”

“해도지도 내놓고요. 석중이 아저씨가 얻든 다른 사람이 얻든 발 주인한테도 미리 말해 놓고 내려왔어요. 내년엔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 늦기는 했지만 믿었다. 애비는. 니 이렇게 제자리로 올 줄.”

그러나 전학은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겁을 내고 있었다. 지난해 대관령으로 올 때의 내 생각이 성급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러나 아주 먼 훗날 그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지난번 승희 누나와 함께 대관령에 왔던 일처럼 그 시기의 성급한 일탈 역시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뒷부분의 줄거리]

나는 그동안 어른놀이를 하느라 길렀던 머리를 깎고, 두 살 아래 후배들의 동급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

- 이순원, <19세>

강릉고등학교 (강원)

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순행적 구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이야기에 현실성을 더하고 있다.
- ④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친밀감을 준다.
- ⑤ 인물 간 외적 갈등을 통해 주인공의 의식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강릉고등학교 (강원)

4.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아버지는 '나'가 학교를 졸업해 은행에 취직하기를 바란다.
- ② (나) - 어른이 된 '나'가 지나간 일을 돌이켜 떠올리고 있다.
- ③ (나) - '나'가 생각하는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다.
- ④ (다) - '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음을 깨닫고 강릉으로 돌아왔다.
- ⑤ (라) - 아버지는 '나'가 일탈을 통해 얻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릉고등학교 (강원)

5.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순원 : 저는 상고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은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강릉 시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대관령 너머 세상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어요. '나는 촌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촌에서 안 살리라' 다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춘기의 방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왼손잡이인지라 주판을 잘 놓을 수 없어서 1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고 외삼촌이 계신 대관령에 올라 2년간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지었습니다. 돈을 벌려고요. 2년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 여동생과 같은 학년이었어요.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었고요. 하하. 남들은 2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19세>라는 소설을 썼으니 작가의 입장에서는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었죠.

- ① 이 작품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나'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하루 빨리 답답하고 좁은 세계라 느꼈던 촌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야.
- ③ '나'가 대관령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 했던 것은 대관령 너머 세상에 대한 작가의 동경심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없어.
- ④ '나'의 일탈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듯이, 청소년들에게 일탈이 성장 과정의 일부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어.
- 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내면을 발견하고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소설이겠어.

1-(1) 풀 비린내에 대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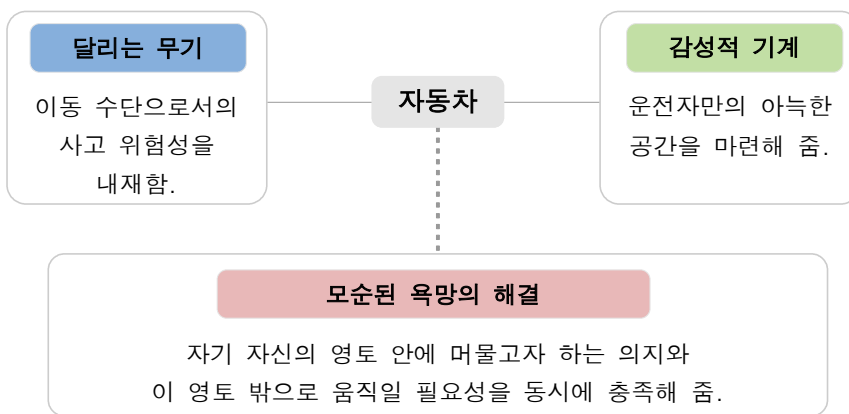
갈래	경수필	성격	성찰적, 생태적, 일상적
제재	자동차, 풀벌레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특징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함.		
구성	처음	<감성적 기계> 관람과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중간	자동차에 대한 종속과 풀 비린내에 대한 경험	
	끝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정리	

핵심 내용

■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 '풀 비린내' 사건 이전

처음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운전에 익숙해졌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낌. 필요할 때만 차를 가지고 다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생김.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짐. 밀폐된 공간에 익숙해짐.

■ 이 글에 나타난 '자동차'의 성격



■ '풀 비린내'의 의미와 글쓴이의 성찰

'풀 비린내'의 의미	글쓴이의 성찰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에서 난 냄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됨.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살생 행위임을 자각하게 됨.

1-(1) 플 비린내에 대하여

■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 '플 비린내' 사건 이후

〈감성적 기계〉 작품 관람	·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곱씹어 봄.
↓	
'플 비린내' 사건	·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보고 죄책감을 느낌. · 모든 운전자들이 이 같은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	
'자동차'에 대한 생각 정리	·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 · 자동차가 더 많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함. ·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플 비린내에 대하여〉로 살펴 본 문학의 윤리적 가치와 기능

〈플 비린내에 대하여〉에 담긴 문학의 윤리적 가치	'플 비린내' 사건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성찰함.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동시에 자연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하게 함.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인간의 삶과 당대 사회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킴. · 삶의 의미를 깨닫고 윤리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 독자의 윤리적 의식을 일깨우고, 윤리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움을 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중략)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 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나)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텡스림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중략)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라)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 있는 먼지 몽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마)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사)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의 풀 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 있을 따름이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아)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매추리를 대붕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 이규보, <슬견설>

강릉고등학교 (강원)

1.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 ② ㉡은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자각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된 냄새이다.
- ③ ㉢을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은 자동차에 대해 글쓴이가 반성하고 성찰한 내용이다.
- ⑤ ㉤을 통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을 이용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강릉고등학교 (강원)

2. (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나그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 ② '나'는 '나그네'의 인간중심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일상적 소재를 이용하여 교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나'는 대조적 사례를 제시하여 '나그네'의 견해를 논박하고 있다.

강릉고등학교 (강원)

3. 다음은 (가) ~ (사)를 읽고 나는 대화이다. ㉠와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 : 작품을 읽은 후 느낀 점을 문학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 이 작품을 읽고 그동안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음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장바구니,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일회용품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 작품을 통해 문학의 (㉠) 기능과 가치를 이해했네요. 이처럼 문학은 (㉡)

- ① ㉠ 미적, ㉡ 독자의 내면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합니다.
- ② ㉠ 인식적, ㉡ 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 ③ ㉠ 인식적, ㉡ 독자를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끍니다.
- ④ ㉠ 윤리적, ㉡ 독자가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도록 이끍니다.
- ⑤ ㉠ 윤리적, ㉡ 독자를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이끍니다.

금호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효율적인 사회에 대한 고발과 함께 생명을 해치는 인간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알 수 있다.
- ③ ㉡은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의 이중적인 속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 ④ ㉢을 통해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
- ⑤ '풀 비린내'의 의미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에서 난 냄새를 말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바퀴, 새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텡스림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재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 있는 먼지 몽치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 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 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나)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蟲)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 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매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 이규보, <술견설(蝨犬說)>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작품 모두 생태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두 작품 모두 인용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 ③ 두 작품 모두 글쓴이의 감정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산문 갈래이다.
- ④ 두 작품 모두 현상에 집착하는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두 작품 모두 자연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글쓴이의 자세가 드러난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6. (가)에 드러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리는 무기'는 자동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유이다.
- ② 차를 없애고 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 ③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였다.
- ④ 자동차는 '감성적 기계'로서 운전자에게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 ⑤ 풀벌레가 차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보고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과 충격을 느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예시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한문 문학의 한 갈래로 우의적인 성격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 ⑤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적 주제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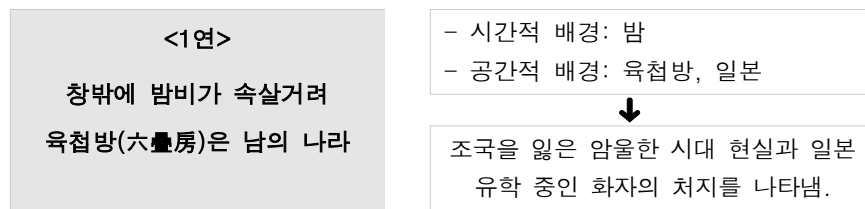
1-(2) 쉽게 씌어진 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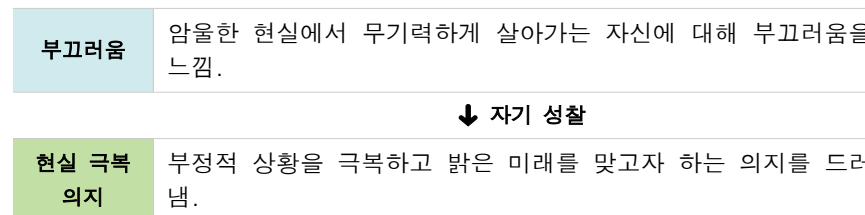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저항적, 성찰적, 미래 지향적
제재	현실 속의 자신의 삶(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함. ②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구성	[1~2연]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의식	
	[3~6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7연]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8~10연]	내적 갈등의 해소와 현실 극복 의지	

핵심 내용

■ 시적 화자의 상황



■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



■ 두 자아의 갈등과 화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소담고등학교 (세종)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간적 배경이자 암울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 ② ㉡ : 낮설고 시적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 ③ ㉢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제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 ④ ㉣ :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꾸는 조국의 불확실한 광복을 나타낸다.
- ⑤ ㉤ : 분열된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합을 의미한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작품은 시인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1942년에 쓴 작품으로, 윤동주는 평소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으며 나라를 잃은 시기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던 시인의 고뇌를 반영한 것이다.

<조건>

1. 시적 화자의 어조를 포함할 것.
2. 7연까지의 현실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대응 태도를 포함할 것.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이 작품이 창작된 시대배경을 고려할 때, 작가가 '쉽게 씌어진 시'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창작된 시대배경을 반드시 언급할 것.
- 작가와 시적 화자가 동일하다고 가정 후, 시를 쓸 때 작가의 현실 대응 태도와 심정을 서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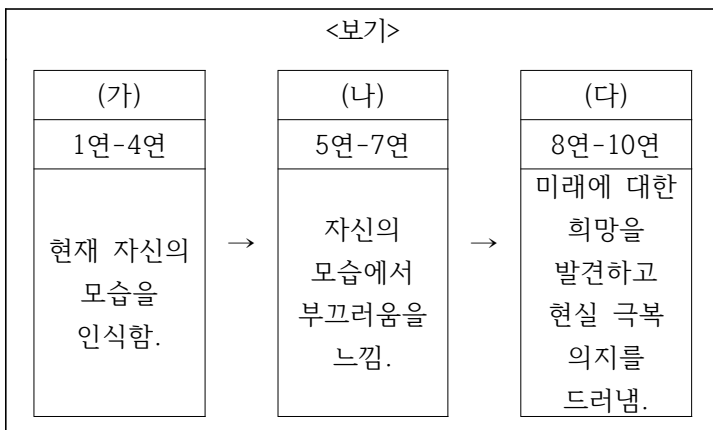
1-(2) 쉽게 씌어진 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화홍고등학교 (경기)

4. <보기>의 구조에 따른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를 통해 시적화자가 현실에 만족해하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부끄러운 일이다.'의 이유는 (가)의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
- ③ (다)의 '최후의 나'와 (나)의 '홀로 침전하는' 나는 현실적 반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
- ④ (가)에서의 현실이 (나)에서도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는 무엇 바라'로 표현되고 있어.
- ⑤ (가)의 '밤비'와 (다)의 '등불'은 현재의 암울한 현실이지만 (다)에서의 화자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화홍고등학교 (경기)

5. 밑줄 친 대상의 표현방법이 ㉠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 ① 모든 산맥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 이육사, '광야' -
- ② 어루만지듯 / 당신 / 숨결 / 이마에 다사하면 // 내 사랑은 아지랑이 / 춘삼월(春三月) 아지랑이
 - 이영도, '아지랑이' -
- ③ 하늘에는 성근 별 /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 정지용, '향수' -
- ④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 매양 쏘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1' -
- ⑤ 동짓달에 치자 꽃이 피는 신방에서 신혼일기를 쓴다 없는 것이 많아 더욱 따뜻한 안랫목은 평강 공주의 꽃밭 색색의 꽃씨를 모으던 흰 봉투 한 무더기
 - 박라연, '서울에 사는 평강 공주' -

1-(1) 봄눈 오는 밤

1.⑤ 2.③ 3.① 4.① 5.② 6.④ 7.④ 8.내용적 측면에서 공통점은 첫째, 봄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대상에 대해 화자가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점은 첫째, 윗글은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기>는 그렇지 않고 둘째, 윗글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대상을 묘사하는데 <보기>는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9.⑤ 10.④ 11.⑤ 12.④ 13.㉠ 눈, ㉡ 중의적, ㉢ 자연현상인 '눈(雪)', 사물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 '눈(目)', 식물의 싹을 뜻하는 '눈(芽)'의 의미를 지닌다. 14.⑤ 15.② 16.② 17.② 18.① 19.㉠은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 눈(눈1)을 감은 상태라는 뜻과, 봄을 맞아 싹(눈3) 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20.② 21.⑤ 22.② 23.② 24.박질 붉은 적토, 비바람 25.④ 26.① 27.① 28.④ 29.③ 30.⑤ 31.①⑤ 32.③ 33.③ 34. '낙원'과 대비되는 것은 '벼슬길'이고 '낙원'은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로 살 수 있는 곳이다. 35.④ 36.② 37.⑤ 38.① 39.⑤ 40.① 41.② 42.③ 43.① 44.⑤ 45.③ 46.③ 47.내면적 자아에 의한 현실적 자아와의 화해를 의미한다.

1-(1) 19세

1.⑤ 2.① 3.⑤ 4.① 5.④ 6.① 7.③ 8.③ 9.⑤ 10.③ 11. (1) 오토바이는 '나'가 자기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라는 의미이다. (2) ㉠어른노릇, ㉡어른놀이 12.④ 13.① 14.(1) [A] 아이 같은 어른 [B] 어른 같은 아이 (2) [A]는 나이가 어려도 경제권이 있고, [B]는 나이가 많아도 경제권이 없다. 15.③ 16.② 17.'나'가 대관령에 가 농사를 지으려고 한 이유는 첫째,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이고, 둘째, 집안에서 벗어나 내 경제의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18.② 19.⑤ 20.① 21.① 22.'나'가 아직 어리며,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23.① 24.④ 25.③ 26.⑤ 27.④ 28.③ 29.③ 30.② 31.① 32.④ 33.시간이 흘러도 어떤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면 그것은 어른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4.⑤ 35.⑤ 36.② 37.② 38.⑤ 39.⑤ 40.② 41.② 42.④ 43.② 44.③ 45.④ 46.④

1-(1) 풀 비린내에 대하여

1.⑤ 2.③ 3.⑤ 4.① 5.① 6.② 7.③ 8.③ 9.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10.① 11.⑤ 12.③ 13.② 14.③ 15.④ 16.⑤

1-(2) 쉽게 씹어진 시

1.④ 2.암울한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3.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② 5.① 6.(1) 조국의 광복, (2)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3) 내면적 자아, (4) 아름다운 혼 7.② 8.④ 9.⑤ 10.① 11.④ 12.① 13.⑤ 14.④ 15.⑤ 16.③ 17.① 18.③ 19.현재는 일제 강점기인 '어둠'의 암울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시대처럼 올 아침'인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짐한다는 의미이다. 20.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를 뜻한다. 21.① 22.(가)의 등불은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희망을, (나)의 등불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한다 23.④ 24.④ 25.시적화자의 신분은 일본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이다. 화자의 삶의 태도는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26.⑤ 27.① 28.⑤ 29.부끄러운 일이다 30.⑤ 31.② 32.④ 33.③ 34.② 35.⑤ 36.⑤ 37.② 38.⑤ 39.⑤ 40.③ 41.② 42.(가)에서는 '어둠', (나)에서는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이라는 구절에서 암울한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가)에서 '시대처럼 올 아침', (나)에서 '제비떼'와 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드러난다. (가)에서 '등불을 밝혀', (나)에서 '너를 불러 보노라'와 같이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 43.④ 44.② 45.땀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1-(2) 보리타작

1.④ 2.⑤ 3.② 4.① 5.④ 6.⑤ 7. '낙원'과 대비되는 것은 '벼슬길'이고 '낙원'은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로 살 수 있는 곳이다. 8.④ 9.④ 10.④ 11.② 12.⑤ 13.④ 14.② 15.③ 16.'서검/청산', '백구/날', '가마귀/백로' 17.⑤ 18.(1) 아전 (2) 황두와 아전은 백성을 수탈하는 중간 계층의 관리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의미한다. 19.⑤ 20.④ 21.④ 22.④ 23.③ 24.⑤